

# 10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다 했으면 11일차 달라고 메일주소와 함께 문자주세요~!

# 국어 영역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계관이란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일관된 견해로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성리학은 이(理)와 기(氣)의 개념에 바탕을 둔 세계관을 통해 도덕적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理)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에 내재된 보편적인 이치나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이(理)는 모든 사물에 본성으로 내재한다. 특히 성리학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이치로서의 선한 본성이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본다. 한편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데에 차이가 생겨나는 이유를 기(氣)에서 ㉠ 찾는다. 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칫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다스리기 위한 부단한 수양을 통해 순수한 본성이 오롯이 발현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위해 성리학에서는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여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기를 통제하고자 하였다.

실학자 정약용은 성선설에 바탕을 둔 기존의 성리학적 세계관을 비판하고,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라고 말하며 ㉡ 새로운 인성론을 주창하였다. 인간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윤리적인 욕구만이 주어졌을 뿐이므로 선을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선을 실천해야만 비로소 도덕성이 갖추어진다는 것이다. 즉 도덕성이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선에 대한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런 실천이 이루어질 때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나와 타인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실학자 최한기는 세계의 모든 존재는 기(氣)라는 보편적인 요소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모든 존재의 본성인 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기는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 소통하면서 선악이 나타난다. 인간의 윤리도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면 선하고 도덕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인간은 감각 기관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형성하며 이런 지각은 추측에 의해 확장된다. ‘추측’은 논리적인 추론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윤리적 공부나 실천과 같은 경험적인 부분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게 될 때 그것이 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 된다. 추측을 바르게 하지 못해 외부 세계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내면이 아니라 외부 세계의 운동과 변화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처럼 최한기는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되는 공동체의 세계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성리학은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내면적 수양을 강조하였으며, 정약용과 최한기는 실천과 소통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 ① 성리학은 경험주의적 세계관을 토대로 형성되었다.
- ② 성리학에서는 본성은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성리학에서와 달리 최한기는 본성을 절대 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④ 성리학에서는 기는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⑤ 성리학에서는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이(理)의 개별적 속성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2.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보아도 부끄럽지 않고, 나아가 호연지기가 천지에 가득 차게 되어 모든 덕을 갖추게 된다. 반대로 날마다 양심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이익으로 유혹하면 개나 돼지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된다.

- ① 사람은 주체적인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 ② 사람은 남으로부터 이익을 얻기 바라는 이기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다.
- ③ 사람에게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선한 도덕성이 선천적으로 부여되어 있다.
- ④ 사람은 내면에 대한 관조를 통해 경건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 선이 실현된다.
- ⑤ 사람은 감각을 통해 경험을 쌓고 추측을 통해 주변 사물과 소통하며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

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는 외부와 전쟁을 치르면서 나라는 어려움에 처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 관리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리사욕에 집착해 백성은 어려움을 겪었고, 나라는 더욱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실학자들은 대안을 모색하려 했다.

- ① 정약용은 부정한 관리들이 사리사욕을 채웠다 하더라도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겠군.
- ② 정약용은 백성들을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 ③ 최한기는 여러 관리들이 타고난 악한 기로 인해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겠군.
- ④ 최한기는 본분을 망각한 관리들의 모습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⑤ 최한기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당대 현실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소통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겠군.

# 국어 영역

4. ㉔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다.
- ② 감기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부쩍 늘었다.
- ③ 나는 저금했던 돈을 은행에서 찾았다.
- ④ 어떤 손님은 항상 이 과자만 찾는다.
- ⑤ 어머니가 빗자루를 찾는다.

[5~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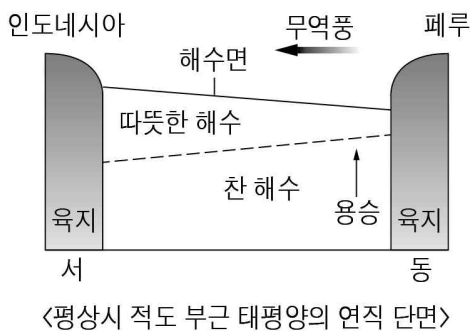
지구의 여러 곳에서 장기간에 걸친 가뭄, 폭염,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이상 기후가 발생하여 인간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러한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원인 중에는 ㉑ 엘니뇨와 ㉒ 라니냐가 있다.

평상시에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에 있는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으로부터 서쪽으로 무역풍이 지속적으로 분다. 이 무역풍은 동쪽에 있는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는 서태평양 쪽에서는 두껍고 동태평양 쪽에서는 얇아진다. 이와 함께 남아메리카 페루 연안에서는 서쪽으로 쓸려 가는 표층수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차가운 심층 해수가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용승\*이 일어나게 된다.

이 결과 적도 부근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는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지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높아지게 된다.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해수가 증발하여 공기 중에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켜 저기압이 발달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해수 온도가 높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강수량이 많아진다. 반대로 남아메리카의 페루 연안에는 하강 기류가 발생하여 고기압이 발달하고 맑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적도 부근 태평양의 무역풍은 2~6년 사이로 그 세기가 변하는데, 이에 따라 적도 부근 태평양의 기후 환경은 달라진다.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 태평양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진다. 이로 인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용승이 약해지며 해수면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높아진다. 따뜻한 표층수가 동쪽에 머무르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은 평상시에 비해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고, 적도 부근 동태평양은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는데 이 현상이 엘니뇨이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발생하고,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기도 한다. 반면에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많은 강수량을 보이면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등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된다.

한편,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낮아지



고 적도 부근 서태평양의 해수면의 온도와 해수면의 높이가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 이런 현상을 라니냐라고 한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동남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홍수가 잦아지거나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대로 페루, 칠레 등에서는 평상시보다 더 건조해져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라니냐가 발생하면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상승하고 서태평양의 기압은 평상시보다 하강하여 두 지역의 기압차는 평상시보다 더 커진다.

\* 용승: 표층 해수의 이동에 의해 심층의 찬 해수가 상승하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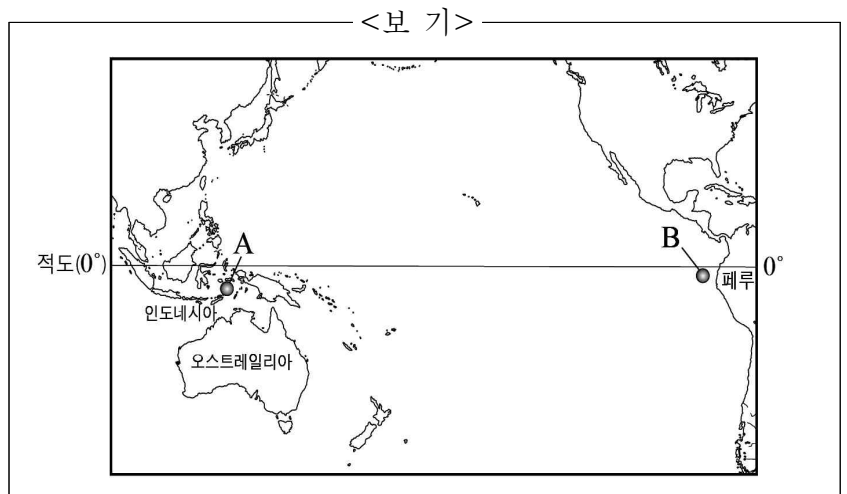
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들을 제시하고 그 현상들의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설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검증하고 있다.
- ③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현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유용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고 그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발생한다.
- ② 평상시에 무역풍은 적도 부근 태평양의 표층수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 ③ 동태평양 페루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진다.
- ④ 평상시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저기압이 발달하면 적도 부근 서태평양에 위치한 동남아시아의 강수량이 많아진다.
- ⑤ 평상시에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따뜻한 표층수가 서쪽으로 이동하여 동태평양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

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그림을 활용하여 ㉑, ㉒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㉑일 때보다 ㉒일 때 더 높다.
- ②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㉑일 때보다 ㉒일 때 더 두껍다.
- ③ ㉑일 때, A 해역의 해수면의 높이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
- ④ ㉑일 때, A 해역 부근 지역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㉒일 때, A와 B의 기압 차는 평상시보다 더 크다.

# 국어 영역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단아 ㉠ 그넷줄을 밀어라  
머언 바다로  
배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이 다소곳이 흔들리는 수양버들나무와  
베갯모에 놓이듯 한 풀꽃더미로부터,  
자잘한 나비 새끼 피꼬리들로부터  
아주 내어 밀듯이, 향단아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로  
나를 밀어 올려다오.  
채색한 구름같이 나를 밀어 올려다오  
이 울렁이는 가슴을 밀어 올려다오!

서(西)으로 가는 달같이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

바람이 파도를 밀어 올리듯이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  
향단아.

- 서정주, 「추천사」 -

(나)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넷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어릴 때는 나비를 좇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음지도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치면서 말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나선 것도 아니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땅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 나희덕, 「땅끝」 -

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며 화자를 성찰하게 하고 있다.
- ② ㉡은 작품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화자와 청자가 갈등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③ ㉠과 ㉡은 모두 소망에 이르기 위한 수단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주변의 대상들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 ⑤ ㉡과 달리 ㉠은 화자의 정서를 빗대어 보여 주고 있다.

9.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인간은 이상을 동경하는 존재로, 이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미련이나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고뇌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런 고뇌와 좌절은 유한적 존재인 인간이 겪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을 보여 주며, 문학에서 보여 주고자 하는 가치 있는 삶의 태도이기도 하다.

-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결별해야 할 대상으로 볼 수 있군.
  - ② ‘저 하늘’은 화자가 동경하는 이상과 연관된 공간이겠군.
  - ③ ‘울렁이는 가슴’은 현실적 제약을 벗어나 이상을 성취하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군.
  - ④ ‘서(西)으로 가는 달’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을 지닌 화자를 나타내고 있군.
  -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어려울 지라도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10.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는 어린 시절에 겪었던 삶의 좌절을 표현한 것이다.
  -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얻는 보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는 삶의 시련과 이를 극복한 성취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④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는 삶의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⑤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삶의 고통 속에서 깨달은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 국어 영역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수의 자택에 연못이 생긴 것은 그 며칠 전의 일이었다. 뜰 안에다 벽이고 바닥이고 시멘트를 들어부어 만들었으니 연못이라기보다는 수족관이라고 하는 편이 알맞은 시설이었다. 시멘트가 굳어지자 물을 채우고 울긋불긋한 비단잉어들을 풀어 놓았다.

비단잉어들은 화려하고 귀티 나는 맵시로 보는 사람마다 탄성을 자아내게 하였으나, 그는 처음부터 흘기눈을 떴다. 비행기를 타고 온 수입 고기라서가 아니었다. 그 회사 직원 몇 사람 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 밖의 몸값 때문이었다.

[A] “대관절 월매짜리 고기간디그러?” / 내가 물어보았다.  
 “마리당 팔십만 원씩 주구 가져왔다.”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모르기에 나의 월급으로 계산을 해 보니, 자그마치 3년 4개월 동안이나 봉투째로 쌓아야 겨우 한 마리 만져 볼까 말까 한 값이었다.  
 “웬 늙은 잉어가 사람버덤 비싸다나?”  
 내가 기가 막혀 두런거렸더니,  
 “보통 것은 아닐러면그러. 뽀어낸뽀(베토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차에코플구실어(차이콥스키)라나 웨라나를 틀어 주면 또 그 가락대루 따라서 허구, 좌우간 곡을 틀어 주는 대루 못 추는 춤이 읊는 순전 판따라 고기닝께. 물고기두 꼬랑지 흔들어서 먹구사는 물고기가 있다는 건 이번 에 그 집에서 춤 봤구면.”

그런데 이 비단잉어들이 어제 새벽에 떼죽음을 한 거였다. 차고 일어나 보니 죄다 허영게 뒤집어진 채로 떠 있는 것이었다.

총수가 실내화를 썬 발로 뛰어나왔지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 “어떻게 된 거야?”

한동안 녀 나간 듯이 서 있던 총수가 하고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유자를 겨냥하며 물은 말이었다.

“글쎄유, 아마 밤새에 고뽀이 들었던 개비네유.”

유자는 부러 탄청을 하였다.

“뭘야? 물고기가 물에서 감기 들어 죽는 물고기두 봤어?”

총수는 그가 마치 혐의자나 되는 것처럼 화풀이를 하려 드는 것이었다. / 그는 비위가 상해서,

“그야 팔자가 사나서 이런 후진국에 시집와 살라니께 여러 가지루다 객고가 썩어서 조시두 안 좋았을 테구…… 그런데다가 부릇쓰구 지루박이구 가락을 트는 대루 디립다 취했으니께 과로해서 몸살끼두 다소 있었을 테구…… 본래 받들어서 키우는 새끼덜일수록이 다다 탈이 많은 법이니께…….”

그는 시멘트의 독성을 충분히 우려내지 않고 고기를 넣은 것이 탈이었으려니 하면서도 부러 배참\*으로 의문을 떨었다.

“하는 말마다 저 말 같잖은 소리…… 시끄러 이 사람아.”

총수는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

[중간 부분의 줄거리] 불상을 닦는 일로 총수의 미움을 사게 된 유자는 총수의 개인 운전수 자리에서 쫓겨나 회사에 속한 차량의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를 맡는다.

그가 다루는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 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의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 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쭉 비탈진 산꼭대기에 더뎡이 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이 셋방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들이 사는 꼴이 말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현실적인 딱한 사정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별이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홀어미와 단칸 셋방에 살고 있거나, 여편네가 집을 나가 버려 어린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 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B]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식구가 단출하면 쌀을 한 말 팔아 주고, 식구가 많은 집은 밀가루를 두 포대 팔아 주고, 그리고 연탄을 백 장씩 들여놓아 주는 것이 그가 용돈에서 여탈\* 수 있는 한계였다.

그는 쌀가게에서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하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 백 장을 지게로 져 올려 비에 안 젖게 쌓아 주기를 마칠 때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집을 나와서 골목을 빠져나오다 보면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비탈길을 다 내려와서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곤 하였다. 산동네 초입의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아까 그 집의 부엌에 간장밖에 없었던 것이 뒤늦게 떠오른 것이었다.

그러면 다시 주머니를 뒤졌다.

그가 반찬 가게에서 집어 드는 것은 만날 얼간하여 엮어 놓은 새끼 굴비 두름이었다. 바다와 연하여 사는 탓에 밥상에 비린 것이 없으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 하는 대천 사람의 속성이 그런 데서까지도 드티었던\* 것이다.

도로 산비탈을 기어 올라가서 굴비 두름을 개 안 당게 고양이 안 당게 야무지게 매달아 주면서,

“뽀(부엌)에 채우(겨우) 지랑(간장)뽀이 읊으니 뽀이구 수제비구 건건이가 있으야 넘어가지유. 탄불에 귀 자시든 뽀술에 썩 자시든 하면, 생긴 건 오죽잖어두 뇌인네 입맛에 그냥저냥 자셔볼 만혈류.”

쌀이나 연탄을 들여 줄 때는 회사에서 으레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나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만 보던 노파도,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 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 배참: 꾸지람을 듣고 그 화풀이를 다른 데다 함.  
 \*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 드티다: 밀리거나 비껴나거나 하여 약간 틈이 생긴다.

# 국어 영역

11.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그 회사 직원들'의 봉급 수준을 알고 있었다.
- ② '노파'는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유자'에게 도움을 청했다.
- ③ '스페어 운전자'들은 그들의 자질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로 별이가 좋았다.
- ④ '총수'는 비단잉어들이 죽은 이유에 대한 '유자'의 대답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 ⑤ '유자'는 그룹 내 '동료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처리할 때 적당주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1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② [B]는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에서 등장인물의 행동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현재와 과거의 사건을 교차하여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A]는 주인공의 부정적 측면을, [B]는 주인공의 긍정적 측면을 제시하여 인물의 이중적인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1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유자소전」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물의 행적을 사실적으로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을 빌려 와 전통적 삶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하려고 했다. 또한 지역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체를 사용했고, 인간적 도리를 꾸준히 실천하는 평면적인 인물을 통해 산업화 속에 나타나는 부정적 가치관과 인간 소외의 문제를 들추어내고 있다. 이 작품은 양심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주인공의 삶을 조명하여 산업화 속에 사라지고 있는 전통적 삶의 양식을 보여 주고자 했던 작가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 ① 유자가 사용하는 방언과 익살스러운 표현을 통해 토속적인 느낌과 인물에 대한 정감을 주고 있군.
- ② 유자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인정미 넘치는 모습을 통해 인간적 도리를 실천하는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
- ③ 유자에 얽힌 일화들을 소개하여 그가 한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의 형식을 빌려 온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총수의 사치와 허영심에 대한 유자의 불만스러운 태도를 통해 산업화 시대의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⑤ 총수의 운전자에서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업무 담당자로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하는 유자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볼 수 있군.

# 국어 영역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 서 흡 밥 닷 흡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옥하다  
 설 데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괴로워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뭉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랴  
 수염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을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 내 분(分)인 줄 알리로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1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1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한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 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은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 해설

- ④①③①①
- ③②③④⑤
- ④②⑤⑤⑤
- ⑤

□ 출전: 임부연, <실학에 길을 묻다>

### 1.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성리학에서는 기가 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① 5문단을 통해 성리학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실학자 최한기는 본성을 끊임없이 활동하고 변화하는 기로 파악했다. ⑤ 2문단에서 성리학은 개개인의 도덕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기에 있다고 하였다.

### 2.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는 선과 의로움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는 정약용의 관점을 보여 주고 있다.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도덕성을 갖추게 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을 구분하여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할 줄 아는 분별 능력을 갖춘 윤리적 욕구로 보았다. ⑤ 4문단에서 외부의 사물이나 사태에 대한 올바른 추측과 부단한 소통으로 도덕성이 실현된다고 보는 것은 최한기의 관점이다.

###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조선 후기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백성의 고통을 보여 주고 있다. 4문단에서 최한기는 기 자체에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올바른 추측을 통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할 때 악이 생긴다고 보았다.

①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선에 대한 주체적 선택과 지속적인 실천을 할 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은 본성인 선에 대한 욕구가 충족된 것이 될 수 없다. ② 3문단에서 정약용은 선의 실천이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선의 실천을 통해 도덕성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4문단에서 최한기는 인간의 윤리가 기의 운동과 변화에 합치되어야 선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보았다.

### 4.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①은 ㉔의 경우처럼, '모르는 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려고 애쓰다. 또는 그것을 알아내고 밝혀내다.'의 뜻으로 쓰였다.

②는 '어떤 사람이나 기관 따위에 도움을 요청하다.' ③은 '말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게 되다.' ④는 '어떤 것을 구하다.' ⑤는 '현재 주변에 없는 것을 얻으려고 여기저기를 뒤지거나 살피다. 또는 그것을 얻다.'의 뜻으로 쓰였다.

□ 출전: 모집 라티프, <기후의 역습>

### 5.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적도 부근 태평양에 나타나는 현상을 평상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각각 해양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 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2문단과 3문단에서 용승이 일어나면 동태평양 페루 연안의 해수면 온도가 같은 위도의 다른 해역보다 낮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① 3문단에서 표층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면 따뜻한 해수가 공기를 데워 상승 기류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2문단에서 평상시 무역풍이 동쪽의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으로 운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무역풍이 따뜻한 표층수를 서쪽 방향으로 이동시켜 동쪽에서는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얇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 7. [출제의도] 세부 정보 추론하기

이 글을 통해, 라니냐일 때 B 해역의 따뜻한 표층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A 해역으로 이동하므로 B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은 얇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 엘니뇨의 영향으로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낮아진다.(4문단)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강해지면 A 해역으로 따뜻한 표층수가 평상시보다 더 많이 이동하므로 A 해역의 표층 해수의 온도는 평상시보다 더 높아진다.(5문단) ④ 엘니뇨일 때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고 평상시에 비해 강수량이 감소하여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가뭄, 산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4문단)

□ 출전: 서정주, <추천사>  
나희덕, <땅끝>

### 8.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그넷줄'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에 가기 위해, (나)의 '그네'는 노을을 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 9.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서(西)으로 가는 달'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의 '나'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와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볼 수 있다.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화자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뇌를 일으키는 것들로, 결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그렇게 나를 밀어 올려다오'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운명적 좌절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계속 지향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 10.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화자가 계속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는 화자가 살면서 힘든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다.

□ 출전: 이문구, <유자소전(兪子小傳)>

### 11.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말 가운데 어디가 어떻게 듣기 싫었는지 자기 성질을 못 이기며 돌아섰다'는 서술자의 진술을 통해 충수가 유자를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마지막 문단에서 노파가 유자의 자상함에 눈시울을 적시며 고마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유자에게 반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도움을 청했다는 것은 알 수 없다.

### 12.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B]는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으로 '유자'의 행위를 설명하고, '늘 무엇인가를 빠뜨리고 오는 것처럼 개운치가 않았다'와 같은 구절을 통해 힘든 사람들을 가엾게 여기는 유자의 심리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 13.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평면적 인물이란 작품 내에서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인물의 유형을 말한다. 상황에 따라 인간성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자는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유자가 충수의 운전수일 때 인간성을 상실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유자가 처지가 바뀌고 나서야 인간성을 회복한다고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출전: 조찬한, <빈천(貧賤)을 팔려고~>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14.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를 통해 이해타산에 밝은 세태를, (나)에서는 '장부 뜻을 바꿀런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등에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②(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볼 수 없다. ④(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이 쓰이지 않았다.

### 15.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㉔은 '화자 자신의 분수'를 뜻하는 표현으로, '내 분인 줄 알리로다'라는 대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일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화자는 '설 데운 승냥'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부 뜻'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16.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안빈 일념'을 품고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을 각각 보인다. 특히 (나)에서 화자가 과거에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④ '일단심'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므로,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이를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서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